

# 진여원(眞如苑) NEWS LETTER

## [제20호](2015.10)

서울시 용산  
구 청파동  
3가 119-2  
진여원홍보  
팀

### 성지단참 교도, 종정스님 만나뵙다!

#### 종정스님, 성지 단참 한국교도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격려

지난 10월 4일 야마나시 신쵸지 별원 야외에서 행해진 제등호마 봉수 후 별원 제1정사에서 종정스님은 한국의 단참교도들을 접하시고 가까운 시기에 부산정사 낙경을 위해 오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다.

이 때 방문일정을 더 앞당겨달라는 단참교도들의 요청을 받은 종정스님은 일정조정은 한국교도들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고, 단참교도들은 정진교도 1,000명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이 실현되면 종정스님의 방한일정은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종정스님은 이 날 한국 단참교도들을 맞이하여 예상보다 훨씬 넘는 시간을 할애하시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다. 종정스님은 90명이 넘는 단참교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한복을 입고 선물을 전달한 두 어린이 교도 등의 손을 꼬-옥 잡아주셨다. 종정스님은 앞줄에 앉은 교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도 잡으시며, 개조·영조께서 확립한 ‘구제의 힘’이 한국에서도 확대되고, 신뇨엔 코리아의 미래를 위해 토대가 되어 달라는 당부를 주셨다.

#### 제등호마, 후지산이 뚜렷하게 드러난 가운데 엄숙하게 봉수

제등호마가 봉수된 10월 4일 야마나시 가와구치호수 주위의 새벽날씨는 제법 쌀쌀했으나, 해가 올라오면서 기온이 서서히 상승, 가을의 따가운 햇살을 나타내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였기 때문에 후지산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 이날의 제등호마에 참좌한 교도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항상 정상 주위가 눈으로 덮여 있는 후지산에 익숙한 한국교도들은 눈이 전혀 없는 푸른 산 후지산을 바라보고는 “이 산이 진짜 후지산 맞아?”라고 하면서도 방글방글 웃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좋은 날씨로 맞이해 주신 천지의 호법선신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수 천명이 참좌하여 행해진 이날 제등호마는 전 세계의 의처로 생중계되었다.

## 종합도량인 응현원 참배

응현원에 도착한 단참교도들은 국제부 국원의 안내에 따라 지령계·천령계 호법선신님께 기도를 올리고, 본동으로 들어갔다. 3층으로 올라간 교도들은 제등호마 법요로 많은 교도가 참좌해 있는 보전의 열반존상께 기도를 올리고, 부동명왕님이 모셔진 ‘명왕의 방’, 법부모님과 두 법사님이 모셔진 ‘신뇨의 방’ 순으로 참배하였다. 이어 ‘여래의 방’, ‘보살의 방’, ‘만다라의 방’, ‘회향의 방’ 등을 차례로 참배했다.

## 접심도량 참배

응현원 참배 후 버스로 15분 거리의 접심도량으로 이동하였다. 복건 접심도량은 1958년에 낙경된 모습과 동일하게 복건되었다고 하는 현지 국원의 설명과 안내에 따라 개조께서 열반존상을 근각하신 아뜰리에, 호법선신 사당을 거쳐, 접심도량 보전 순으로 참배하였다. 접심도량은 2층 건물로서 수행공간과 생활공간이 한 지붕 아래에 있었다. 단참교도들은 당시 다른 사찰과는 달리 접심수행을 위해 넓게 확보된 접심수행 공간, 개조님의 서재, 개조·영조께서 교도들의 신심을 향상시키기 위해 뜨겁게 토의를 하시던 거실, 교도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시던 자그마한 카운터, 부엌 등을 유심히 관람했다.

## 오야소노(총본부) 참배

접심도량 참배 후 단참교도들은 약 100m 거리에 있는 오야소노로 이동했다. 부처님의 영시(靈示)로 터를 잡은 오야소노!

경내로 들어선 교도들은 청정한 분위기에 차분한 마음으로 참배를 하였다. 참배는 지령계 및 천령계 호법선신, 지장보살, 신초지(부동명왕), 제1정사(열반존상), 제2정사(십일면관세음보살), 영묘(개조·영조·교도인님·신도인님)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오야소노에는 많은 신뇨 신불(神仏)이 모셔져 있어 영기(靈氣)가 가득했다. 단참교도들은 영혼의 고향인 오야소노에서 청정해지고,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다.

## 개조의 생탄지 나가사카기념관 참배

제등호마 참좌 후 단참 교도들을 가득 태운 대형버스 두 대는 개조의 생탄지 나가사카의 기념관으로 순풍에 뒷단듯 달려갔다. 교도들은 개조께서 태어나자마자 추위에 몸이 얼어 울음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우물에서 퍼 올려 데운 물로 씻기자 비로소 울음을 터뜨렸다는 ‘산성(産聲)우물’의 역사현장을 접하고는 개조의 비범한 탄생을 이해했다. 어린 시절을 보내신 집도 관람했다. 생탄지는 뒤편에 야초가타케, 왼쪽에는 금봉산, 오른쪽에는 고마가타케, 앞쪽에는 후지산 등 2,000m 이상의 높은 산들이 20여개 이상이나 쏟아있는 고원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주고 대지에서 솟아오르는 영기(靈氣)로 인해 생탄지는 청정함 그대로였다. 단참교도들은 어린 시절 이곳에서 개조께서 예언을 하는 등 보통아이들과는 다른 특이함을 보여주셨다는 현장을 돌아보았다.

## 우심원 참배

3일째 단참교도들은 동경의 가장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우심원을 참배하였다. 우심원은 8층 높이의 2개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날은 원휴일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단참 교도들을 위하여 특별히 오픈되어 있었다. 5층 보전에는 불단이 하얀 색상으로 매우 밝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중앙에는 열반존상이, 왼쪽 약간 앞에는 십일면관세음보살님, 오른쪽 약간 앞에는 부동명왕님이 모셔져 있었고, 열반존상 바로 앞에는 개조·영조·두 법사님이 함께 모셔져 있었다. 그리고 사천왕 등 호법선신이 앞쪽에서 신뇨 부처님들을 수호해 주고 계셨다. 단참교도들은 게이슈사마께서 올려주시는 사천왕 진언에 따라 결연을 하였고, 보전에 앉아 기도를 올렸다.

## 토리카에 선생님도 한국 단참교도의 열기에 놀라워하는 모습

한국교도들이 종정스님을 뵙던 신쵸지 별원 2층 보전에는 토리카에 선생님과 나가츠카 교무장, 시타라 국제부장이 함께 배석하여 한국교도들의 열기를 기쁘게 지켜봐 주셨다.

한편 종정스님께서 한국교도들과 신쵸지 별원 제1정사에서 만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현지 교도 2백여명이 이번의 역사적인 ‘만남의 현장’을 보기 위해 한국 교도들의 뒷자리에 함께 참좌하였다. 특히 종정스님께서 단참 교도들의 손을 잡아주실 때에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기도 했다.

## 박노경 교도, 종정스님께 바친 감사의 글

신뇨 게이슈사마! 저희들은 한국 모든 교도의 마음을 원하트로 모으고 모아 기쁨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도들은 신뇨 가르침에 정진하며, 특히 다음의 세 가지를 뜻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방문을 그토록 바라셨던 개조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2000년 9월 게이슈사마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한국의 모든 교도들이 기쁨으로 준비한 “일여의 모임”에서 받은 벽찬 감동이 떠오릅니다.

둘째, 작년 법부모님, 두 법사님의 존상을 모실 때 “우리가 간다”고 하시며, 마치 친부모님이 방문해 주신 듯한 경이로움과 “제섭섭수”, “발고대수”의 구제를 체험한 교도들이 많습니다.

셋째, 작년에는 게이슈사마의 참마음으로 훌륭한 부산정사를 받아 개조께서 근각해주신 열반존상을 안치하는 봉안법요를 통해 저희들은 넘치는 감격으로 “진여부처님”을 모셨습니다.

부처님을 직접 뵙는 기쁨과 공덕은 무한하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교도들만을 위한 이 자리에 게이슈사마께서 직접 발걸음을 옮겨주신 것에 저희들은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입교 80주년인 내년에는 게이슈사마께서 다시 한국으로 오시어 부산정사의 “입불개안” 법요를 봉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교도 모두는 원하트로 결집하여 게이슈사마의 참마음에 따라 신뇨 가르침을 널리 전해 갈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 정경숙 국원, 제등호마에 승사(承仕)로 수행

10월 4일 제등호마에서는 정경숙 국원이 신뇨엔 코리아의 대표교도로 선발되어 승사로서 종정스님을 보좌하며 정화의식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단참 기간 중 따사로운 날씨

단참기간인 10월 3일~5일 모두 현지의 날씨는 매우 좋았다. 3일간 모두 맑고 때때로 구름으로, 일본의 평소 10월 초 태풍이 간간히 닥치는 것과는 달리 매우 좋은 날씨였다. 이는 천지의 호법선신님께서 단참교도들에게 내리신 큰 선물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단참교도들의 이구동성이었다.

## 국제부, 한국단참 교도 위해 세심한 배려 아끼지 않아

한국교도들의 성지 단참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제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응현원 도착에서부터 사토 한국담당과 오오이 포교사, 노정원 국원 등이 주차장으로 직접 마중을 나왔고, 타카하시 포교사도 합류하여 응현원, 접심도량, 오야소노를 직접 안내해 주었다. 특히 노정원 국원은 동경 도착에서부터 우심원에서 떠날 때까지 단참교도들과 밀착하여 세심한 배려를 해주었다.

## 단참교도,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격려하며, 질서정연하게 참배

이번 단참은 매우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산 단참 교도들은 출발 전부터 5~7명으로 구성된 7개조를 만들어 준비했다. 그리하여 김해공항 집결에서부터 귀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소에서 인원 확인이 용이했고, 안내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아울러 응현원 참배에서부터 우심원 참배에 이르기까지 줄을 지어 입장하고, 참배시간도 잘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줄을 벗어나는 이탈자가 전혀 없었고, 모든 참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단참교도 모두가 종정스님께서 강조하시는 원하트를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가슴에 안고 왔기 때문이다. 출발 전부터 단참 관련 정보를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출발시 윤계숙 교도는 떡을 준비해왔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교도에게는 몸으로 봉사하면서 각 성지에서의 참배 및 일정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한마음으로 임해주었고,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배려의 말들이 단참을 화합의 분위기로 만들어 나갔다. 국제부는 이러한 단참교도들의 화합, 배려 및 질서정연한 모습을 높게 평가해주었다.

## 신뇨의 성지 단참 이모저모(1)



<제등호마 법요>



<접심도량을 참배한 단참교도>



<쾌청한 후지산과 가와구치호수>



<신쵸지 별원 부동명왕 존전>



<개조님 탄생시 몸을 씻은 우물>



<개조님 산성(産聲) 우물가에서>



<개조님의 어린 시절 자택>



<개조님께서 다니신 초등학교와 마을>

## 신뇨의 성지 단참 이모저모(2)



<정경숙 승사>



<응현원에서>



<나가사카의 개조 선조님 묘소에서>



<접심도량 참배중인 단참교도>



<제등호마 현장에서>



<우심원에서>



<개조님의 탄생지 공원에서>



<후지산의 숙소에서>

